

공항철도, 공공성·수익성 두 마리 토끼 잡았다

12년간 18배 성장...누적 이용객 5억3천447만 명 육박



2010년 12월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노스톱으로 운행하는 직통열차를 개통하였다.

서울역에서 인천국제공항 1, 2터미널 역을 연결하는 공항철도(AREX)가 2007년 3월 개통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개통 초반 저조한 수송 실적 때문에 '공기 싼고 달리는 열차'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으나 올해 1월 인천공항 2터미널 역이 개통하면서 운행 거리가 63.8km로 늘어나고 9월에 마곡 나루역이 추가 개통해 하루 평균 23만 명이 이용하는 대한민국의 핵심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공항철도는 도심과 공항을 연결하는 '공항 연계철도', 출퇴근을 위한 '도시철도', 여가를 위한 '관광철도'의 세 가지 주요 기능을 하고 있다.

올해에는 비즈니스 평가 부문 오스카상으로 일컬어지는 '국제비즈니스대상'에서 금상과 동상을 받아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졌다.

최근에는 한국표준협회에서 주관하는 제44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서비스품질 부문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서울 도심에서 인천공항,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공항철도는 외국인 이용객이 매년 증가해 작년 한 해 305만6천115명이 이용했다.

개통부터 지금까지 12년간 공항철도 누적 이용객은 5억4천만 명이며, 이 중 외국인 누적 이용객은 1천882만여 명에 달한다.

서울역에서 인천공항 국제선 탑승 절차를 사전에 할 수 있는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은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의 탑승 수속이 가능하며 하루 평균 724명이 이용하고 있다.

김한영 공항철도 사장은 "공항철도는 민영회사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철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역할과 소비자 서비스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며 "고객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영국 런던시 인터컨티넨탈 런던 파크레인 호텔에서 10월 20일에 진행된 '국제비즈니스대상' 시상식에서 김한영 공항철도 사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왼쪽부터) 조석현 주임, 김한영 사장, 마이클 갤러히(Michael Gallagher) 회장, 백진욱 홍보실장